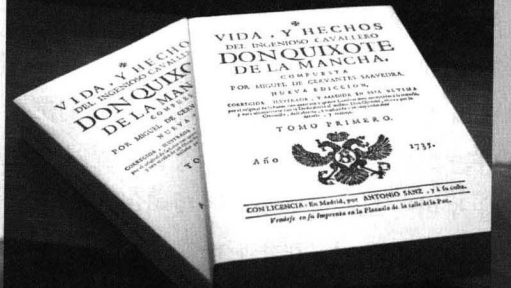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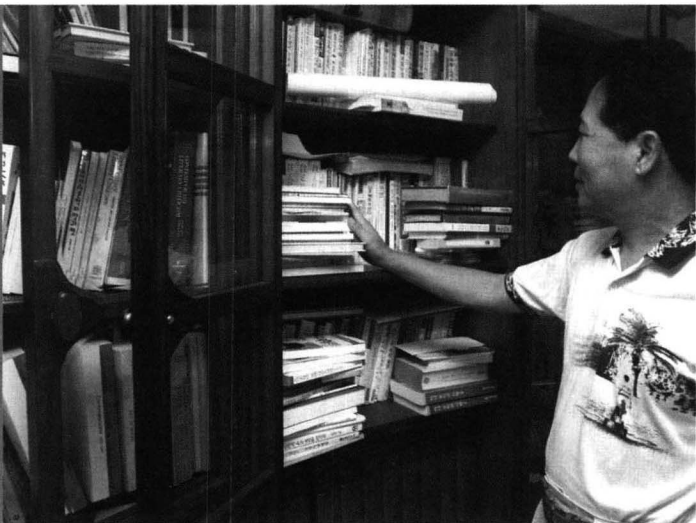


나의 서가이야기 | 민용태 고려대 교수

'영원 속의 나'를 읽고, 대화한다





대학은 방학이지만 그의 서재에는 방학이 없다. 평생의 역작이었던 《돈키호테》 완역을 끝낸 후 다시 500페이지 분량의 스페인 문학 작품 번역에 몰두하고 있는 그는.

고전을 위한 공간, 서가

민용태(63) 교수의 서가는 평생 교수이자 시인으로 살아온 그의 생을 요란하지 않게 담고 있었다. 가로로 긴 책장 위에 놓여 있는 지구의가 그의 서가에 더할 수 없이 어울리는 것은 왜일까. 돈키호테를 40년 넘도록 작사랑해왔다는 그이기에 돈키호테적 정열과 호기심으로 세계 곳곳을 누비는 모습이 연상되는 탓이리라.

그는 1968년 〈창작과 비평〉으로 등단한 후 여러 권의 시집을 낸 시인이면서 스페인 문학을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있는 고려대 서문어과 교수이다. 그에게 스페인 문학은 유학시절부터 후학들을 양성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가 그 중에서도 애착을 갖는 것은 《돈키호테》를 비롯한 16~17세기 스페인 문학.

“고전은 조작이 덜 된 문학의 원형입니다. 매체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쓰인 글들이 오히려 인간적으로 깊은 성찰을 보여준다는 것이 고전의 역설적 매력입니다. 강의 를 위해서 수백 번도 더 읽었던 16~17세기 고전이지만 읽을수록 새 맛이 납니다.”

그는 서재란 고전을 읽기 위한 공간이라고까지 얘기한다. “서재가 없는 나의 서재”라는 그의 말마따나 꼭 필요한 책들 외에는 잘 소장하고 있지 않은 편이라고. 서재의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16~17세기 스페인 문학 작품들. 아끼는 책이라며 골라드는 책은 스페인 문학의 황금기를 구가한 시인 궤베도(Quevedo)의 작품과 18세기 관 《돈키호테》이다.

궤베도의 책은 칼을 이용해 찢어서 보는 책의 특성상

원래 네 귀퉁이가 너털너털했었는데 책을 빌려간 제자가 그 너털너털한 부분을 다 잘랐다. 아끼는 책의 원형이 손상되어 속상할 만도 한데 “원형파괴지, 뭐” 하며 껄껄 웃고 만다.

18세기관 《돈키호테》는 우연히 구한 것이지만 흥미로운 특징 때문에 가치를 둔다고 한다. 보통의 《돈키호테》와 달리 이 책에는 세르반테스가 만든 허구의 작가인 시데아메페 베넹헬리의 서문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시의 기적, 책의 기적

가난한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낸 탓에 그에게 장서는 일종의 사치였다. 고등학교 시절 청록과 시인들을 좋아해서 필사본을 만들어 열심히 외우고 다녔지만 대학 진학은 독문과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학과로 진로를 변경한 것은 고3 여름방학 때 우연히 듣게 된 스페인어 공개강좌 때문이었다.

“문예지 〈학원〉에서 보았던 《돈키호테》라는 위대한 소설을 낳은 것이 바로 스페인 문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연인지 운명인지 여름방학이 끝나고 첫 번째 생물시간에 잡종강세(雜種強勢)에 대해 배웠습니다. 잡종 1대가 양친의 우수한 점만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인데 그날로 나는 내가 한국 문학과 스페인 문학을 결합시켜 잡종강세를 이루어야겠다고 결심했지요.”

실로 돈키호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일견 무모해 보이는 그런 열정과 패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그가 존재했을까. 문학가가 되기 위해서 스페인어학과에 진학한다는 발상도 특이하지만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결단력과 실천력은 놀라울 정도다.

스페인어에 문외한이었던 만큼 한 과목을 백 번씩 위우는 성실성으로 스페인어를 독파하고 스페인 문학을 통해 나의 문학을 풍부하게 하리라는 목표로 청계천 헌책방을 돌며 스페인 책들을 사모았다. 그러던 중 그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책과의 만남이 있었다. 그가 세계에서 가

민용태 교수는...

전남 화순 출생으로 한국외국어대 스페인어과를 졸업하고, 스페인 마드리드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8년 〈창작과 비평〉으로 등단해, 시집 《시간의 손》(풀어쓰기) 《스과 x 사이》 등이 있다. 저서로는 《서양문학 속의 동양》(라틴아메리카 문학 탐색) 등이 있다. 1970년 스페인 마차도문학상을 수상했고, 스페인어 시집이 여러 권 있다. 현재 고려대 서어서문학과 교수이다.

장 위대한 시집이라고 칭하는 파블로 네루다 시집과의 만남이 그것.

“하도 책을 사러 자주 가니까 헌책방 주인들은 나만 보면 영어 외의 언어로 쓰인 책은 무조건 내놓는 거예요. 어느 날, 헌책방에 들렀는데 주인이 ‘이런 책이 들어왔다’면서 보여준 책이 있었어요. 시집이었지요. 바로 파블로 네루다의 《스무 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였습니다. 인연을 맺는 삶의 순간을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순간은 내게 기적이었습니다.”

시집을 사서 집으로 오기는 했지만 그 당시의 독해력으로는 이해가 어려우 무조건 외웠다. 2,3학년이 되어서야 스페인 문학사를 배우며 네루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스페인어로 시를 쓰기 시작했다. 모국어로 낸 시집도 여러 권이지만 그는 유학시절 스페인에서 신인문학상까지 수상한 스페인어 시인이기도 하다.

“우리가 외국문학을 배우는 이유는 자국의 문화를 살찌우기 위해서입니다. 외국문학을 거울삼아 한국문학을 본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시야가 넓어질수록 안으로는 깊어지니까요.”

스페인에서 돌아온 그는 고려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시인으로 번역가로 평론가로 방송인으로 다방면의 활동을 보여주었다. 방송을 타면서부터 그의 이름 석 자 뒤에는 시인이나 교수 못지않게 ‘방송인’이라는 타이틀이 자주 붙는다.

코미디언 이경규와 함께 거리의 양심을 찾아 나서기도 했고, 지구촌 곳곳을 누비는 연예인들과 함께 세계의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어느 자리의 누구와도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그에게 ‘정말 교수 맞나?’는 질문이 수식어처럼 따라붙곤 했다. 학자적 권위와 문학기적 허세를 제거한 자리를 채우는 것은 인간적 온기와 온화함이다.

“책은 내가 영원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합니다. 책을 통해서 나를 다시 읽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영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깊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 속의 자기 모습을 반추해 보지 않은 자는 지극히 얕은 자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영원 속의 나를 본다는 것은 나를 편안하게 합니다. 책은 영원 속의 하나의 무늬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즐거움입니다.”

화려한 명사의 서재를 상상했기 때문일까. 소박한 그의 서재는 의외였다. 하지만 서가로 꼭 차있었다면 오히려 느끼기 힘들었을 충만함이 그의 서재에는 존재했다. 마음 맞는 책이라면 단 한 권으로도 영원 속의 나를 읽고, 영원 속의 나와 대화할 수 있을 터. 서재가 아름다운 것은 그곳에 많은 책이 꽂혀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의 더께가 앉고, 함께 한 영혼의 추억이 아로새겨진 그 책에 깃든 본인의 애정 때문이다. 그의 서재가 아름답게 느껴진 건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

취재 이주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죽음을 뛰어넘은 영원한 사랑에 대하여〉라는 깨베도의 시를 낭독하는 민 교수. 눈빛은 깊어지고 목소리는 서늘해진 채 ‘사랑에 취한 먼지가’라는 마지막 행을 읊는 그는 첫사랑에 빠진 스무 살의 청년으로 돌아간 듯 했다.